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캡이어

코딩하러 오시영

제 발표 theme 는 (눈물젖은) '찐빵'



저는 원래

딥러닝을 공부하는 청년 백수

공부하는 청년 백수

근데 점점

청년 백수

백수만 남았어요

백수 를 wikipedia에서 찾아봤어요

비슷한 말

백수건달

백수(白手) 혹은 백수건달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라는 뜻으로, 깡통만 차지 않았지 [거지](#)나 집에서 빙등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놈팡이

직업없이 빌빌거리며 노는 사내를 낚잡아 이르는 말이다.

wiki가 심한 말하네요...

빈털터리... 지식 빈털터리....



이런 유혹 느끼시지 않나요?

이렇게 일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느니

맘 편하게 맘껏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공부하고 싶다

캡이어
다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눌러 앓고

어떡갈때까지 가보자고





영화 300 결말 아시죠?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이렇게 된 셀 풀어볼게요



안물안궁 갑이어史

20XX년 XX월,

🐥 평화로운 웹 개발자였던 저는 자연어처리 관련 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TF-IDF? 형태소? 불용어? 동음이의어 대표어 처리. 패턴 추출이요?



대체 자연어처리라는 게 뭐길래 평화로운 나의 일상을 방해하나!
그래, 일단 배워보자.

찾다 찾다 '모두의 연구소' 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풀잎스쿨도 하고, DataLab 도 하고.

근데 하다보니

이대로 계속 조금씩 공부를 하면 뭐가 남지? 평일 저녁, 주말 시간 내는 걸로 부족해.
시간을 더 내보자!

이후재의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1차 캡이어

회사를 그만 두었다!

Data Engineering 을 더 파보자!

"삽질은 내가 최고..." 내 무덤 내가 파기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토픽영상 - 삽질은 내가 최고...'무덤파기 대회' 눈길

삽질,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다음 스텝

 다시 회사로

재택가능 +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

-> 서비스 회사로 옮김

많이 배웠습니다.

회고, 피어 리뷰, 개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신뢰를 쌓는 태도



이렇게 꽂 길이?

Nope

개발팀이 사라졌어요 😱

2차 갑이어

를 시작하면 던져진 화두

1. 비즈니스 안에서 '개발' 역할?

- 개발자들이 대다수인 회사 -> 개발자가 (저 포함) 2명인 회사
 - 개발 프로덕트 != 사용자 서비스
- '개발자 ->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 비즈니스 -> 매출' 이 아님
- 개발 프로덕트 좋다 -> 돈 번다 
- 개발 프로덕트 잘 만들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사용자 서비스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비즈니스 안에서 개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2. '개발자'를 꼭 직업으로 계속 해야할까?

- 개발자 좋아. 만드는 거 좋아.
- 근데 직업으로 해야할까? 직업이 아니라 내 정체성 일부분으로만 남게 된다면?

 개발자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갑이어동안 해봤어요.

서비스 기획

학습자 - 개발 교육

- 강의, 조교
- 교육 콘텐츠 만들기
- SW 교육 워크숍, 교육이 무엇인지 공부 공부

개발 컨퍼런스 준비 n개월

그랬더니

매 일 매 일 나 의 이 야 기
2021 DIARY



실시간 추천



다이어리 필터

1+1

2021캘린더
구매하셨나요?

아직이라면! 썸무드디자인
2021캘린더를 1+1에!



곧 2021년이래요



2021년도 캡이어 갑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갭이어는 어떤가요?

저는 Start small, Fail Fast

여러 시도를 했고
스스로의 답을 얻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결론 : 개발자 하자! 4대보험 ❤ 만세!

새로운 화두

?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를 할까? 개발은 수단!

올해는 '나' 관찰일기



늘어난 시간 여유.
일은 미루지 않게 되고,
책임은 내가 지고.



지속가능한 반백수 생활을 위하여

신예희 지음

원하는 만큼 쉬고 필요한 만큼 일하는
20년차 프리랜서의 라이프스타일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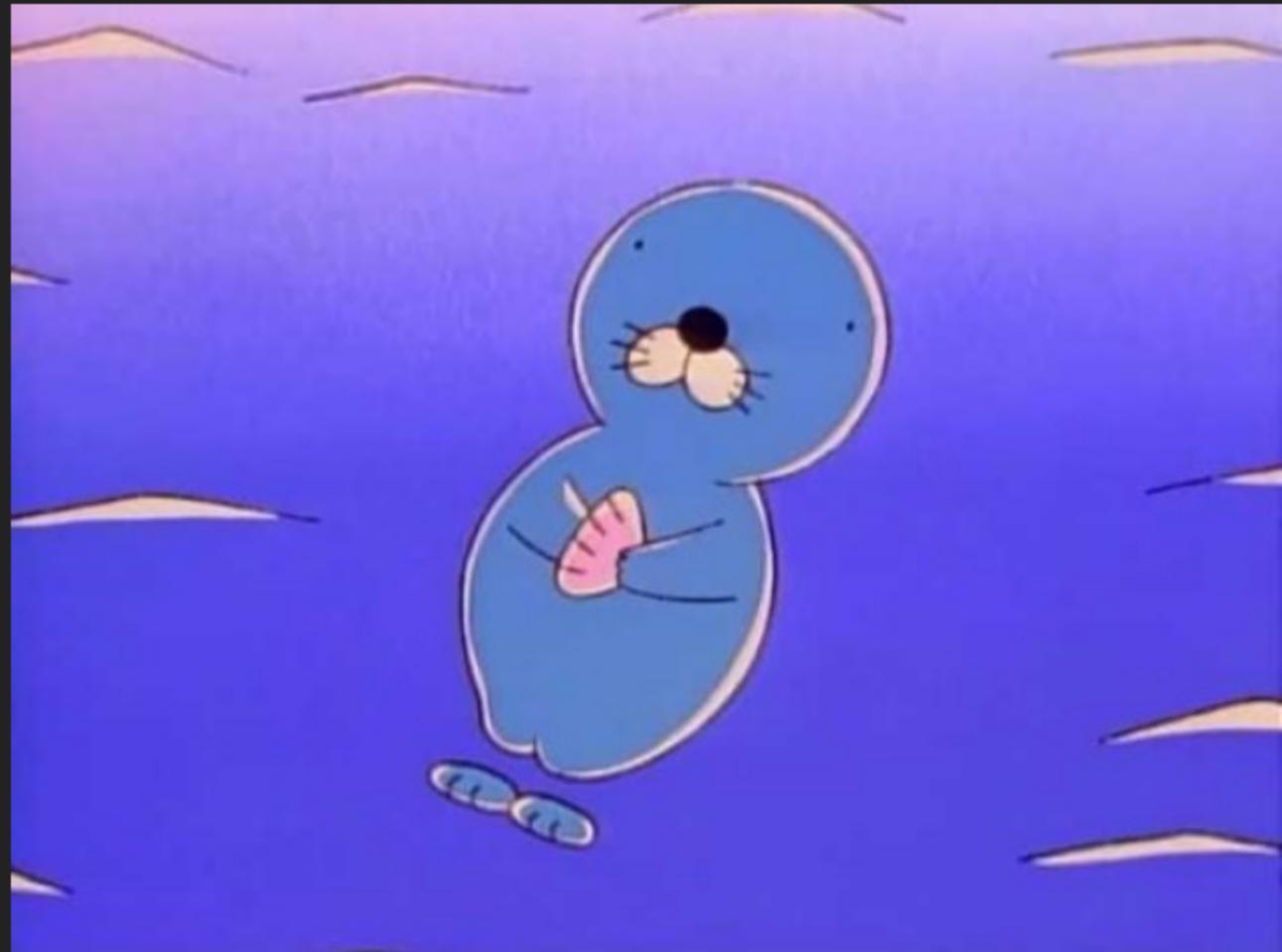
21세기북스

스스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

때로는 그게 같은 결론일지라도 나의 흐름과 감각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고민하기.

저에게 갑이어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탐색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강물을 떠다니는 보노보노처럼



돌이켜보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캡이어 전 이 정도는 생각해보심 어떨까요?

캡'이어(year)' -> 오랜 기간 지속가능한가? -> 공간만들기

1. 경제적 공간

2. 생활습관 공간

3. 정신적 공간 - 도반

4. 정보 공간

1. 경제적 곳간

안정적인 생계가 가능한가?

주거, 목돈이 나갈 때 대책

- 비상금 통장 (적금, 마이너스 통장 등)
- 작게나마 정기 수입 (강의 등)
- 실비보험

2. 생활 공간

생활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 생활 패턴 잊기가 쉬움. 24시간이 다 내가 쓰는 시간.
 - 풀타임잡 이었을땐, 평일 개인시간은 4시간 남짓. 무얼 해도 알차게 쓸 수 있음.
- 늘어지거나 다운될 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일어나기
 - 저는 클라이밍, 산책,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가기

생존 운동

정신적 공간 - 도반

- 자극받을 수 있는 사람 or 같이 공부해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스터디그룹, 커뮤니티

정보 곳간

 감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자극받을 곳은?

- 현업에 있을 때보다 기술 흐름에 둔감해질 수 있음
 - 인생 실전인데, 실전 없고 사이드 프로젝트만 할 수 있다!
- 뉴스레터, 컨퍼런스, 커뮤니티
- 오픈 소스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기

그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Fail Fast 하면 외롭지 않게
제가 옆에서 외쳐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결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갭이어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대할게요.

Start where you are. Use what you have. Do what you can.

-- Arthur Ashe

발표 자료 내 이미지 출처 1/2

- page 02. KBS1 "빛나라 은수" 105회, 2017.04.25.
- page 08. "건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백수건달
- page 09. MBC "베스트극장 587화 - 형님이 돌아왔다", 2004.07.16.
- page 13. 영화 "300". 감독 잭 스나이더. 2007
- page 15. 이미지 원본 - "대학생 공감 - 몽글이"
- page 16. 대학일기 :: 네이버 만화- 작가: 자까
- page 24.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 이휘재의 인생극장", 1993.10.24

발표 자료 내 이미지 출처 2/2

- page 28,50. 광고 Never Say No to Panda - Office ([Youtube 링크](#))
- page 33. "꽃길 (윤수현)노래 고은향" ([Youtube 링크](#))
- page 46. 교보문고 - 기프트 웹 페이지. 2020.11.20.
- page 52. 관찰 일기 쓰기(과학적 탐구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워 주는). 강라현. 계림. 2006
- page 59. 지속가능한 반백수 생활을 위하여. 신예희. 21세기북스. 2019
- page 62. 애니메이션 보노보노
- page 73. 광고 야나두. 2019